

“불법 생활화 위기극복 해답”

네팔 붓다다르마센터 원장 세쥬 린포체

특별 인터뷰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동산이 있는 곳. 그러나 우리에게 네팔은 아직 낯선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13일 네팔불자 모임 창립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네팔 붓다다르마센터(The Buddha Dharma Center) 원장 세쥬 린포체(Lopon Tsechu Rinpoche)를 만나 네팔 불교와 현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불교의 해답을 들었다. (편집자 주)

—한국에서 일하는 네팔노동자들의 불자모임(Nepal Buddhist Family) 창립법회에 참석, 법문을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어느 법회보다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타이베이에서 열린 세계평화를 위한 제2차 불교대회에 함께 참석한 경봉현의 김동훈 운영위원장의 초청을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부처가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듯이 모든 것은 업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8만4천법문은 부처님을 비롯한 여러 부처와 보살님들이 이룰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다윈주의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기독교처럼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다거나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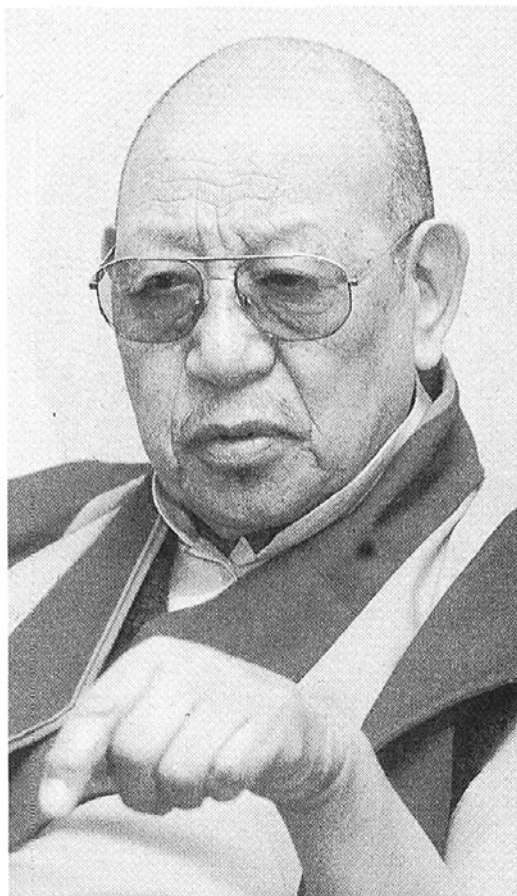
양국 교류확대 기대

—현대는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과 과도한 경쟁으로 정신문명이 고사상태에 이르렀다는 우려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힌두교는 시내에 내려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붓다다르마센터는 수행과 대중의 불교이해를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온 수행자들에게 참선과 불교의식, 전통의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불교에 심취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과학기술과 기독교문명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그들이 불교에 이질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금 서양은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일류입니다. 비행기를 이용해 1시간에 수천Km를 갈 수도 있습니다. 핵무기 하나로 한 나라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붓다다르마센터를 찾는 서양인들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



약력
1918년 파키스탄의 수도 부탄에서 태어나 7세에 출가했다. 이후 여러 수행을 거쳤으며, 네팔에 돌아와 사찰 건립과 불교포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1962년 네팔불교협회장을 조직해 회장을 역임했으며, 방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불교도우의회 의장으로도 활동했다. 현재는 네팔 붓다다르마센터의 원장으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있다.

시론

사랑과 미움의 사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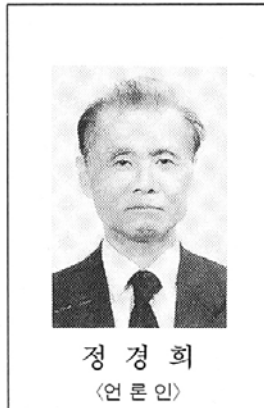
‘죽은 시체에 매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천하를 호령하던 두 군사정권의 집권자와 그들의 측근이 쇠고랑을 차게되자 목청을 돋우고 이들의 과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단군 이래 최악’의 폭력정권집단을 비판·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서슬이 퍼뜨렸던 때에는 침묵을 지켰거나 사실상 협력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검찰이 ‘공소권 없음’이나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침묵을 지켰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정의의 대변자’ 행세를 하는 꼴은 딱하다.
어쨌든 12·12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을 단죄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뒤늦게나마 정부 여당이 나선 것은 다행한 일이다. 오히려 ‘죽은 자에게 매질’하는 시늉으로 끝나지 않을까 경계할 일이다.
우리의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

방선거로 드러났다. 호남과 충청, 그리고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각각 큰당여리를 이루고, 수도권이 다시 야당권으로 분할됐다.
이러한 지역갈거현상에 대해 정치권을 비판하는 소리도 컸지만, 결과보다는 원인을 먼저 비판하는 것이 순서다. 10여년에 걸친 영남지역 파벌정치가 물고 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역사 바로 세우기’ 잣대

지역갈거현상이 우리 정치의 새로운 문제점이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파벌 정치체제하에서 소외당해 왔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선택한 결과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다시는 지역파벌정치가 있어선 안된다는 경고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 지역파벌정치야말로 인간적인 사랑과 미움의 사슬로 엮어진 정치다. 일정 지역 출신의 ‘내고향 사랑’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체제야 정치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원시적인 애증관계는 집단적인 ‘적(敵)’을 필요로 한다. 미움(敬遠)과 불신(不信)의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지역갈거도 지역파벌정치에 대한 최종적 해결책은 아니다.



정 경 희
(연론인)

오늘날 한국은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의 정치적 구호가 흥수를 이루고 있다. 그 화려한 구호들의 행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보다는 미움과 증오의 질서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정치집단들과 정치인들이 날란 새면 공격과 방어가 급급하고 있다. 소위 ‘국민적인 불안감’의 원인이자.
그 일차적인 책임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와 여당쪽에 있다. 공격과 방어가 계속되는 한 어느 누구도, 어느 정치집단도 두 다리 뻗고 지지는 못할 것이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과거 폭력체제의 분명한 단죄와 함께, ‘미움’의 구조를 탈피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
부처님은 ‘사랑이 곧 여래(慈如來)니라(열반경)’ 하였고, ‘친·불친(親·不親)에 마음 항상 평등하게/친하고 안 친하고 하나로 화합하라(금광명경)’ 일하셨다.
신라의 의상(義相)스님은 문무왕이 백성의 피담으로 성(城)쌓기를 끊이지 않자 나무랐다. “다스림이 밝으면 비록 풀 언덕에 글을 그어서 성(城)이라 해도 백성이 감히 넘지 못할 것이다. 다스림이 밝지 못하면 비록 장성(長城)이 있더라도 재해(災害)를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러한 역사의 상식과 전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군사정권이 파놓은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 권력이 국민을 적으로 삼고, 국민은 정권과 그 정권에 기생하던 사람들을 적으로 삼아야 했던 시절의 함정이다. 그것은 정치의 ‘미움’과 ‘증오’의 잣대로 분간하는 습관화된 증상이다.

‘과거단죄’ 그 다음은

예를 들어 ‘세대교체’만 해도 그렇다. 세대교체는 퇴장을 강요당하는 사람과, 신입생의 대량생산을 뜻한다. 그런데도 신입생집단은 새 세대답게 새로운 이념과 정강 정책을 유권자 앞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세대교체는 결국 이념과 정책의 교체가 아니라 인간의 교체, 그 기준은 인간적인 사랑과 미움이 될 것이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랑보다는 미움이요.
정치자금과 관련된 소위 ‘정치권 사정(右正)’도 마찬가지다. 나만은 해놓고 누구는 얼마를 받았다는 식의 뜬소문이 그 핵심이다. 결국 모호하게나마라도 받았다는데까지는 왔지만, 뜬소문시비가 남긴 인간적인 애증(愛憎)의 상처는 깊다.
전국민이 몇개의 ‘지역적 연고(緣故) 집단’으로 분할된 현상은 지난해 6월 지

정성은 기자

현실 인정하면서 ‘사성제’ ‘팔정도’ 쉽없이 뒤길 “서양인들 불교 심취 ‘마음의 평화’ 찾으려는 노력”

받았습니다. ‘한국에 2천명 이상의 네팔노동자들이 와있고, 그들의 대부분이 불자인데, 그들이 불자모임을 만드는 데 와서 법문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형제들을 위로하고 또 양국 관계 증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해 흔쾌히 오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7세에 출가, 이후 여러 수행과정을 거쳐 주축 받는 수행자가 되셨습니다. 수행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불교는 하나입니다. 한국 일본 등의 불교는 그 나라의 전통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불교는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팔만사천법문에 비유할만큼 광대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대의 위기에 불교는 어떤 처방과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현재의 처해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네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는 고민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에만 매달려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씩 하나씩 생활로 옮기는 데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현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불교의 해답입니다.
—스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붓다다르마센터도 하나의 대안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네팔의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거의

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선 수행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와의 인연은 어떠신지요.
▲81년 일본에서 열린 세계불교대회에 참석했을 때 한국의 한 승상이 나를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많이 닮아 동질감을 느꼈고,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언어소통의 문제가 있어 한국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왔으니 두 나라 불교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네팔과 한국은 정부간의 교류는 있었지만 불교교류는 없었습니다. 이번이 첫번째 방문입니다. 히말라야 오지에 있고 힌두정권인 관계로 연락이 잘 안되어 이번 방문도 그리 쉽지는 않았습

니다.
—네팔은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동산이 있는 곳이지만 한국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네팔불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팔인구 60% 불자
▲네팔불교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기독교와 힌두교인들은 병행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포교하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이 그들의 혜택에 이질하게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팔 인구의 60%가 불교신자임에도 네팔의 왕은 힌두교를 믿고 있어 불교포교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많은 네팔불교도가 살고 있는 시골에는 교통과 통신시설이 거의 없어 불교포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네팔은 매우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붓다는 신이 아니며, 따라서 모든 것은 업에서 나옵니다. 내가 린포체가 된 것도 덕을 쌓아서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가르침입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은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오는 27일은 성도절인데, 과연 어떻게 수행해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일찍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사성제와 팔정도를 알려 주셨습니다. 어떻게 수행하느냐는 수행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 수행법이 깨달음으로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큰마음으로 정진하면 빨리, 천천히 정진하면 천천히 깨달음에 이르렀죠. 힘없는 정진을 당부합니다.

세계 최대 석굴 기도도량 · 불교성지 최고의 기도처

일봉사 무료 불교회관 **평생선원** 선착순 입주

석굴법당참배 및 평생선원답사(설명회)

- 일 시 : 1996년 1월 26일(음 12.7)
- 출발시간 : 10시 30분
- 접 수 : (051) 867-1516(좌석관계로 미리 접수 바람)
- 출발장소 : 부산교대 맞은편 한양프라자 앞
- 동 참 금 : 무료

불교회관 소개

- 내방을 콘도식으로 평생 사용 가능 (1인 1실 = 8평형)
- 공양 · 세탁 · 목욕 · 물리치료 · 정기종합검진 등을 무료로 평생 제공 (휴양 · 오락시설 완비)
- 천혜의 기암절벽, 경관 수려한 석굴법당에서 평생기도 (한가지 소원성취)
- 별세하시면 49제 영가천도 해 드림

연락처 : 경남 의령군 공유면 평촌리 산 63 / ☎ (0555) 72-9990 (증무소)

일봉사 주지 **혜운** 합장